



지난해 여름 김선자 관장이 운영하는 곡성 길작은도서관에서 할머니 시인들과 초등생들이 책을 매개로 만남을 갖고 있는 모습.



지난해 5월 할머니들이 쓴 시를 모아 펴낸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맨 왼쪽이 김선자 관장. <곡성 작은길도서관 제공>

오지마을에 문학의 씨 뿌리다

2017 文化로 물들다

2 곡성 길작은도서관 김선자 관장

한글교실 열어 까막눈 할머니들 시집 내고

독서동아리 운영 초등생들은 동시집 발간

올해도 문학강좌·시창작 강습 등 문화행사



할머니 시인들의 작품집 '시집살이 시집살이'(왼쪽)와 초등학생 아이들이 펴낸 '잘 보이고 싶은 날'

곡성 길작은도서관 김선자(46) 관장에게 지난해는 의미있는 해였다.

한마디로 문화에 흠뻑 빠져 산 시간이었다. 김 관장 자신을 위해서보다 주변의 '소외된' 이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도서관 관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문화와 밀접하기도 하지만 문화를 매개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기에는 분명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김 관장은 작년에 두 가지 '큰 일'을 해냈다. 하나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아름다운 시집을 엮어낸 것과 또 하나는 아이들의 시와 그림을 모아 시화집을 펴낸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시집살이 시집살이'(북극곰)이며, 후자는 '잘 보이고 싶은 날'(북극곰)이다. 모두 곡성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반아이가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저자들이다.

김 관장은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영암 출신인 김 관장이 곡성에 온 것은 지난 2004년이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곡성교육청순화 사서로 일을 하면서다.

“환경이 열악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좋은 책을 접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책을 많이 구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김 관장이 길작은도서관을 열고 지역 문화 교육과 봉사에 뜻을 두게 된 이유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 시를 쓰고 시집까지 출간해 적잖은 보람을 느꼈다. “할머니들이 며느리로 살아온 '시집살이'와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시작한 '시집살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들이 시집을 내기까지에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작은도서관을 개관한 뒤로 할머니들이 자주 놀러오셨어요. 더러 책 정리를 도와주었는데 자주 거꾸로 읽는 것을 보고 한글 교실을 열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지난 2015년에 곡성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곡성문학상에서 네 분이 나 장려상을 받았다. 김 관장은 용기를 내서 할머니들을 위한 시집을 내기로 결심한다. 9명의 늦깎이 시인들이 쓴 124편의 시는 때론 담담하게, 때론 예

절하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게 길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기에 이른다. 김 관장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들 시집이 출간되고 얼마 후 '다문화독서동아리'를 시작했다.

김 관장은 “곡성교육지원청 지원사업에 프로젝트가 선정돼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3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모두 43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육과초등생들과 일면 초등생들이 글을 쓰고, 중앙초등생들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생각만큼 프로젝트는 순탄치 않았다.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 수업인지 놀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때도 적지 않았다.

“독서에 습관이 붙지 않은 아이들은 독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으레 부담을 갖게 마련입니다. 한 해 동안 매주 2시간씩 만나 독서 동아리를 꾸렸어요. 문제는 한참 호기심이 강하고 뛰어놀기 좋아하는 때라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김 관장은 나름의 노하우를 현장에 적용했다. 아이들이 표현에 익숙지 않았지만 어떤 것도 칭찬을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책놀이 위주로 진행했다. 여기에 그림책 읽어주는 강사를 섭외해 직접 책도 읽어주고 그림책 만들기 강의도 곁들였다. 우여곡절 끝에 '잘 보이고 싶은 날'이 지난해 12월에 세상에 나왔을 때 김 관장은 인생에 있어 가장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회고한다.

“어린이들이 쓴 시는 대부분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러나 행간을 들여다보면 시를 쓰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역시 서툴지요. 하지만 선과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진지한 태도와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두 번의 에디션 작업을 계기로 김 관장은 올해도 문화를 매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사업, 성인 대상 문학교실, 시창작 강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관장이 이런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인생은 잘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사는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지역민들이나 아이들이 문화를 매개로 긍정적이며 활기차게 살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 여는 그림전 '닭-홀딱 반하다'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5~25일



▶박수만 작 '닭'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이해 2017 새해를 여는 그림전 '닭-홀딱 반하다'를 5일부터 2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우리 민족과 친숙한 닭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며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 15명이 참여해 자유로운 상상력과 해학·풍자가 깃든 작품 15점을 전시한다.

화기(花器)작업을 하고 있는 양갑수 도예가는 동그스런 몸통과 크게 치켜든 눈, 꽃무늬로 장식한 '희망외침'을 출품한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도자기 자체를 닭으로 형상화시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빨강고 노란 닭 두마리가 등장하는 박수만 작가의 '닭'은 새침한 표정이다. 그동안 선보였던 독특한 인체 조형미를 닭에게 대입시켜 짧은 다리, 작은 눈, 굳게 다문 입이 눈에 띈다. 머리에 초록 선글라스를 씌우거나 다리를 4개로 표현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다양한 재료로 제작한 입체적인 닭도 만날 수 있다.

윤남웅 작가는 골판지를 자르고 붙인 닭 작품 '희망'을 만들었다. 부릅뜬 눈과 힘찬 날개짓, 크게 벌린 입은 오색빛깔



양갑수 작 '희망외침'

색채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

또 이기성 작가는 색을 입힌 철사를 구부려 만든 '그라시아 살라 비다'를 설치한다. 기개가 느껴지는 붉은 빛과 대조적으로 노란 몸통은 흔히 보는 치킨을 연상시켜 웃음을 준다.

그밖에 강일호 작가는 '날아라 장닭', 김보수 작가는 '진짜~닭', 박광수 작가는 '암닭 홀딱 벗다', 이선희 작가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선보인다. 문의

062-410-6638. /김용희기자 kimyh@



▶윤남웅 작 '희망'

박광식 · 양계남 · 김재일 · 하철경 · 김병모 · 정 철 · 김효상 · 박은수 · 고희자 · 신은학 · 한갑수 · 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 · 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 · 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맛춤 출장파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교회 · 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